

“환상의 케미” ‘탐정: 리턴즈’, 웃음 장악 예고



영화계 ‘전원일기’를 꿈꾸는 ‘탐정’이 새 시리즈로 돌아왔다. 권상우, 성동일, 이광수는 유쾌한 케미를 발산하며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CGV 압구정에서는 영화 ‘탐정: 리턴즈’ (감독 이연희) 제작보고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권상우, 성동일, 이광수와 이연희 감독이 참석해 취재진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배우들은 영화 개봉을 앞둔 소감을 밝혔다. 전 시리즈에 출연했던 권상우는 “개봉을 앞두고 감개무량하다”고 말했으며, 성동일은 “재밌게 찍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광수 역시

이야기 한층 더 풍성, 웃음·사건 등 더 커져 권상우·성동일·이광수 영화 기대감 UP

권상우, 성동일과 함께하게 돼 좋았다고 솔직한 마음을 전했다.

‘탐정: 리턴즈’는 설복 덕후 만화방 주인 강대만(권상우 분)과 레전드 형사 노태수(성동일 분)가 탐정 사무소를 개업, 전직 사이버수사대 에이스 여자를 영입해 사건을 파헤치는 코믹범죄 추리극이다. 전 시리즈 ‘탐정: 더 비기닝’에 출연했던 권상우와 성동일에 새 캐릭터 이광수(여치 역)가 등장에 이야기가 한층 더 풍성해졌다. 웃음의 크기도, 사건의 크기도 커졌다.

권상우는 “2편에서는 성동일과 탐정 사무실을 차린다. 이때 현실적인 문제와 부딪치게 된다. 1편보다 심도 있게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흥미진진하게 그려질 것”이라며 “2편에서도 내 뽀빠인 모습은 유지된다. 감독님이 너무 재밌다고 하

서 영화가 어떻게 나올지 나도 궁금하다”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다.

특히 ‘탐정: 리턴즈’에서 기대되는 건 배우들의 케미다.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권상우, 성동일에 이광수가 가세해 유쾌함과 웃음의 밀도를 높였다. 성동일은 “상우는 감이 있어서 자기 걸 빨리 찾아먹고, 광수는 어리바리한데 자기 걸 찾아먹는다. 서로 남의 연기를 잘 받혀줘서 호흡이 잘 맞지 않았나 한다”고 귀띔했다.

영화 속 세 사람의 쾌활한 케미는 현장에서 더 이어졌다. 세 사람은 장난스럽게 티격태격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성동일은 “내가 할 거는 관리직 배우로서 두 사람이 가까이 위치하게 하는 거였다. 세 사람의 호흡이 빨리 맞았으면 했는데 첫 만남

부터 너무 편해졌다”며 “셋이 가족처럼 붙어 다녔다”고 해 ‘탐정: 리턴즈’ 팀의 끈끈한 애정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출연 배우들은 ‘탐정’ 시리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권상우는 “‘탐정’은 오래 하고 싶다. 성동일의 기대수명을 고려해 10편까지 할 거다”라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또한 성동일이 “막둥이가 대학을 갈 때까진 하지 않겠냐”라고 하자 이 감독은 “누워서도 연기가 가능하다”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쳤다.

마지막으로 성동일은 “최근 장르물이 유행하고 있지 않나. 똑같은 라면집이라도 맛이 다르듯이 우리 셋만 가진 재미와 장점이 다르니까 그게 관전 포인트다. 스토리는 편하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하다. 셋이 자신 있게 봉쳐서 했다”며 기대를 당부했다.

한편 ‘탐정: 리턴즈’는 오는 6월 13일 개봉한다.

이리와 안아줘, ‘불만한’ 로맨스릴러 탄생



입소문이 시급한 드라마다. 첫 출발은 비록 3%대 시청률에 머물렀지만, 시청률 상승세 또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6일 첫 방송된 MBC 새 수목드라마 ‘이리와 안아줘’ (이아람 극본, 최준배 연출)는 전작의 후광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한 채 출발을 알렸다. 첫 방송의 시청률은 전국기준 3.1%와 3.9%. 전작이던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의 최종회가 2.8%와 3.8%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것으로 봤을 때 전작의 후광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전혀 받지 못한 셈이다. MBC의 수목극은 여전히 동시간대 최하위에 머물르고 있다.

그러나 ‘이리와 안아줘’는 첫 방송 이후 예상 못한 호평을 받으며 MBC 드라마국 골목의 역사를 끊을 준비를 하는 중이다. ‘이리와 안아줘’는 살인사건으로 인해 엇갈린 삶을 살게 된 남녀의 기구한 운명을 그리는 드라마로 불안정한 관계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릴 예정이다. 첫 방송부터 소름돋는 악역이자 사이코패스 살인마로 윤희재(허준호)가 등장해 시청률을 제대로 했고, 풋풋한 아역 배우들이 등장해 ‘로맨스릴러’의 장을 열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소개’라고 할 수 있는 장면들이 다수 나왔다. 허준호는 섬뜩한 사이코패스인 윤희재 역을 소화하며 명물화된 연기력과 존재감을 뽐냈고, 주연으로 처음 도전하는 장기용과 진기주 역시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뒤지지 않는 연기력을 뽐냈다.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연기를 해야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를 아는 ‘형명함’도 갖추고 있어 시청자들에게는 색다른 재미를 추가적으로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아역 배우들의 열연도 시선을 끌었다. ‘영품이역’으로 손꼽히는 남다름과 유연함도 풋풋한 모습으로 드라마의 시작을 안정적으로 열었다는 평이다.

‘로맨스’라고해서 마냥 설렘만 있는 게 아닌 드라마였다. 중간 중간, 윤희재의 등장만으로도 긴장감을 불러넣는 것 역시 ‘이리와 안아줘’가 가진 매력포인트였다.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마을에서 윤희재의 작업실에 발을 들여놓던 김나원(류한비, 성인 진기주)의 모습은 긴장감을 폭발시키기 충분했다. 로맨스와 스릴러를 넘나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연출의 힘이 컸을 터. 최준배 PD는 ‘이아람 작가의 몰입도 높은 스토리에 감응한 연출력을 더하며 로맨스릴러의 새 장을 여는 중이다. 첫 방송은 비록 3%대 시청률로 출발했지만, 입소문’으로 인한 시청률 상승 역시 기대해볼 만하다. 신예들의 반란과 허준호의 저력, 그리고 탄탄한 스토리와 연출의 만능으로 시청자들 역시 “기대할 드라마”라는 호평을 쏟아내고 있다. 앞서 입소문만으로 시청률 반등의 기회를 맛봤던 드라마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리와 안아줘’ 역시 시청률 상승의 기회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효리네민박2’의 주제-단조로움이 주는 안정감



JTBC ‘효리네 민박’ 시즌2가 오는 20일 ‘스페셜 방송’을 한 편만을 앞두고 있다. 시즌은 시즌만큼 화제성이 높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높은 시청률을 유지했다. JTBC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 중에서 광고단가가 가장 높은 콘텐츠이기도 하다.

박집 주인공인 이효리-이상순 부부와 민박집을 찾는 손님이라는 구조는 시즌과 똑같다.

그럼에도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채워방에서 비우기로 도시보다는 지방(로컬), 문명보다는 자연적이고 생태환경적인 느낌이 나는 이 프로

그램은 사람을 흡인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일요일 밤 9시대 될 거 편안하게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월요일을 맞이에도 좋은 프로그램이다.

‘효리네 민박’은 대표적인 저성장 시대의 예능이다. 출세와 돈벌이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목표에 도달하고 나니 남는 건 허무다. 아니, 이제 목표에마저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목표를 졸업 수 밖에 없다. 소확행(小確幸)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으로 정의하지만 여기에는 젊은이들의 깊은 좌절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효리네 민박’은 무척 잘 어울린다. 지난 13일에는 주제라고 할만한 내용이 제시됐다. 이효리, 이상순, 임윤아가 가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 효

리-이상순 부부가 나눈 대화에서다.

“제주생활이 사람들은 로망을 갖고 있지만 되게 단조로워. 여름에도 지난겨울처럼 똑같이 살고 겨울에도 지난겨울이랑 똑같이 특별한 변화무쌍한 일이 없잖아”(효리)

“단조로운 게 너무 심심한 건 아닌지 생각했는데 한 5년 되니까 익숙해지고 이런 게 진짜 안정감이고 좋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불안한 게 없어져”(상순)

효리-상순 부부가 제주생활 5년 만에 깨달은 진리가 ‘효리네민박’의 주제다. 단조로움도 마음이 편안한 걸 최고로 치는 삶이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삶과 정반대의 삶이다.

물론 돈이 많은 이효리의 삶을 따라하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지금 내 자리에서 최대한 편안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이 편안한 것, 그 앞에 아메리카노 한 잔이 있는 삶도 행복하다.

여자친구, 음방 7관왕+음원 1위...‘거침없는 흥행 질주’



걸그룹 여자친구가 신곡 ‘밤’의 내고 있는 것 같다.

로 음악방송 7관왕을 차지하며 흥행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여자친구는 지난 16일 방송된 MBC 뮤직 ‘쇼! 챔피언’에서 ‘밤’으로 1위에 등극하며 7관왕에 올랐다.

이날 1위를 수상한 여자친구는 “언제든 어디서든 응원해주는 버디를 비롯해 ‘밤’을 좋아해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름다운 밤을 보

남은 활동도 더욱 열심히 할 테니 여자친구와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여자친구의 ‘밤’은 현재 (17일 오전 10시) 빅스, 네이버 뮤직, 엠넷 등 세 군데 실시간 차트 1위를 비롯해 멜론, 지니, 올레뮤직, 몽키에서 2위를 차지, 주요 음원차트 1, 2위를 지키며 흥행 중이다.

이처럼 여자친구는 음악방송 7관왕과 음원차트 1위를 차지하며 승승장구 중이다. 특히, 지난주 음악방송 1위를 휩쓸며 2018년 첫 그랜드슬램을 달성

한 주인공으로 등극한데 이어 이번 주 ‘쇼! 챔피언’에서 1위를 차지하며, 2주 연속 음악방송 올킬 가능성을 높였다.

‘밤’은 앨범명 ‘Time for the moon night’의 의미를 담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 샌디해지는 시간을 여자친구만의 감성으로 풀어낸 곡이다.

소녀들의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밤, 새벽 시간을 아름다운 가시들로 맞이했다.

특히, 이러한 노랫말과 음악의 스토리를 담은 ‘격정어린’ 콘셉트로 연속 히트에 성공, 기획력이 빛나는 콘텐츠의 승리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여자친구는 신곡 ‘밤’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다.

오늘의 순세 2018년 5월 18일 금요일 (음력 4월 4일)



▶**경계** 미혼 남녀는 혼담이 있다. 순리대로 행하면 행운의 배필이 정해진다. 지나친 자존심은 배필을 놓치는 격이니 신중히 생각하라. 서, 남쪽 사람이 인연인 듯. 5, 6, 12월생 처세에 주의하고, 한길만 택하라.



▶**신체** 가족으로 인해 신경 쓸 일이 생길 것이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고, 음식도 조심하라. 애정은 부드러운 대화와 감촉이 느껴지는 손길을 상대가 원한다. 용기와 박력이 필요하다. 비, 천, 오 성씨 가정에 활력소가 필요하다.



▶**운명** 하고자 하는 일, 진행이 순조롭다.집안에 경사가 있을 운. 집에만 있으면 병들고 짜증 나니 무엇인가 운명에 맞는 일을 하라. 구속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는 성격이라 가정에 불화가 있을 듯. 3, 5, 9월생 나 자신을 낮춰라.



▶**경계** 어려운 일이 산적했으니 심신이 피로하고, 짜증만 생긴다. 남이 내 마음 같지 않으니 친하다 해도 너무 믿지 말라. 오히려 본인을 이용할 공리부터 한다는 것을 알라. 혼자 새로 시작하는 것은 무슨 일든 동업보다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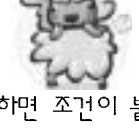
▶**운명** 책임 있게 하고 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고심할 수 있다. 나, 비, 음 성씨는 자기가 부린 씨로 말미암아 책임을 지게 된다. 책임 전가는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니 받아들이라. 남의 마음을 알아줘야 자신도 이해를 받는 법이다.



▶**경계** 애당초 사람을 잘 다스리고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 생각 없이 흘린 말 탓에 큰 병을 당할 수 있다. 사람이 무리하게 돈을 따라가는 것보다 돈이 사람을 따라야 자연스러운 법이다. 진실한 지혜를 받아들이라. 서쪽 사람이 도움 줄 듯.



▶**운명** 변동하자니 뜻대로 안 되고, 돈 쓸 곳이 많아 용돈하자니 그것도 잘 안 된다. 현재는 불황 상태라 마음이 답답하겠다. 4, 7, 11월생 애정, 자식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라. 애정은 양보할 것.



▶**경계** 처음에는 인내하고 노력하더라도 끝맺음을 그려치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간다. 행운은 항상 오는 것이 아니다. 기회를 포착하라. 2, 8, 12월생 자분이 없다고 여자 돈을 사용하면 조건이 붙는다.



▶**운명** 무슨 일든 심사숙고해 결과를 추측해 보고 결정해야 해를 막을 수 있다. 대인 관계에서 방심은 금물이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처리해서는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없다. 3, 7, 9월생 삶에 노력이 필요할 때.



▶**경계** 현재 금전 유동이 안 된다고 변동하게 되면 임시방편만 될 뿐 더욱 고전을 면치 못한다. 내일부터는 풀릴 듯하니 인내력이 필요할 때. 미, 비, 오 성씨 내 것 아니면 탐내지 말라. 관재수가 뒤따라 듯.



▶**운명** 남녀 관계에 깊이 빠지지 말라 구설이 생긴다. 분수를 망각한 행동은 가장 파탄은 물론 관재수까지 동반하니 모든 것을 억제하라. 3, 5, 11월생 부부간 대화가 필요하다. 한 사람의 양보는 가정에 웃음꽃을 피운다.



▶**경계**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얻는 수다. 본인의 단점은 우물에서 송송 찾는 것. 달콤한 남의 말 열 마디를 듣는 것보다 가족의 진실한 충고 한마디가 본인에게 더 이롭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 천, 오 성씨 자기 자신을 지키라.